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 개최

제8대 집행부 사업방향 확정



▲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은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협회 회장단과 이사, 전국 시·도회장, 윤리위원, 편집위원, 설비조합 운영위원, 협회 및 조합 임·직원, 시·도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8대 집행부의 사업방향을 확정했다.

정해돈 회장 ▶ “제8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출정식, 회원사 전체의 강력한 의지를 다져서 작금의 어려운 난관 극복”

이날 워크숍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가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건설경기로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하도급으로 업계는 매우 어려

“원·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설사에 대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원도급 영역확대를 위한 발주방법 개선 등 정부를 상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외부에 요구할 개선사항도 중요하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저가 덤핑수주 자제 등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집행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며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집행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며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 “원·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설사에 대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원도급 영역확대를 위한 발주방법 개선 등 정부를 상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외부에 요구할 개선사항도 중요하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저가 덤핑수주 자제 등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해돈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제8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출정식과 함께 회원사 전체의 힘을 모으고 강력한 의지를 다져서 작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분임토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은 수렴 과정을 거쳐 제8대 집행부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콤비마케팅 연구원장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리더십” 초청강연

협회와 조합은 본격적인 워크숍 진행에 앞서, 김광호 콤비마케팅 연구원장으로부터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김광호 원장은 “고난이 없는 비전은 가짜이며,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비전은 가짜다. 고난과 역경은 성장의 소중한 원동력이다!
 생존을 넘어 위대함으로, 꿈을 꾸고 사랑하며 그리고 싸워라,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리더십은 방향과 동기이다.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땀을 흘리고 전진하라. 프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목숨걸고 혁신하라!”

으로 풍족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개인도 멸망하
 게 된다“면서 골프 스포츠 스타인 ‘미셸 위’와 ‘신
 지애’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김광호 원장은 또 영웅을 네비게이션에 비유하
 며 “가고자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네비게이
 션처럼 영웅을 가슴에 품고 살면 앞으로 자신이 가
 고자 하는 길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웅을 품고 살면서 해야 할 4가지인 ▲바닥에서
 출발하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공격하고 선점
 하라! ▲목숨 걸고 혁신하라!”라고 강조하며 “빌게

이츠도 다빈치라는 영웅을 가슴에 품고 모방했으
 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뛰어넘었다. 자신의 안
 에 있는 영웅을 꺼내 끊임없이 경쟁한다면 누구나
 영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회원사 및 조합원사는 “회
 사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철저히 나아가며 자신을
 혁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
 다”면서 “혁신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광호 콤비마케팅 연구원장은

현재 콤비마케팅 연구원장 / 마케팅 시인

경력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골프와 경영’

중앙 M&B 골프&라이프 ‘필드 마케팅’

KSHARM ‘해피 라이프’

매일경제 ‘김광호의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학’

매일경제 ‘김광호의 골프@마케팅’

MBN-TV ‘필드김의 경영노트’

금융보험통신 ‘기록의 사나이 김광호의 골프@마케팅’

‘대한민국 대표 명강사 99명 중 최고 명강사’ - 한국경제신문 선정(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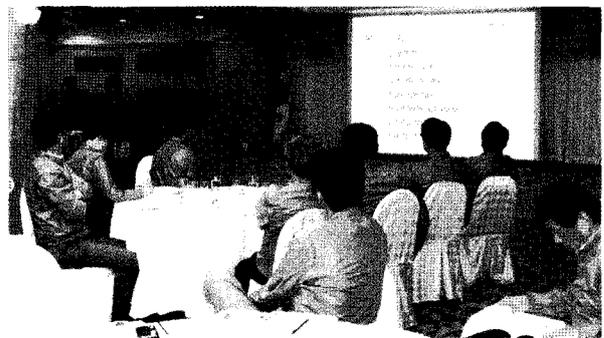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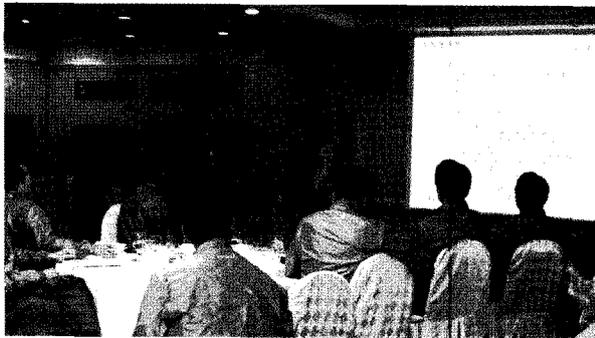
저서 골프@마케팅(금융보험통신, 2001)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 (오늘의 책, 2002)

삼성전자와 타이거우즈(고즈윈, 2005)



▲ 콤비마케팅 연구원 김광호 원장은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리더십"을 통해 기계설비업계에 큰 꿈을 심어주었다.



▲ 협회 및 조합은 연혁부터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고했다.

협회 및 조합 업무보고

이어서 협회와 조합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연혁 △조직 기구 및 임원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재무 현황 △시·도회 현황 및 공사실적 현황 △2011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고, 한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 △조합원 출자자수 및 자본금 현황 △조합원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보고했다.

7개조 분임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 수렴

이어서 협회와 조합은 7개조로 나뉜 분임토의에서 △검증제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건설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설공

사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계 사제도 도입 △조합 신규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
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고액보증 심 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분임토의 주요 안건》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제도	추진 방안 1	추진 방안 2
	폐지	연장
	원도급시장 진출 확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도입)	기계설비업역 보호
겸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비 분리발주 추진과 함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기계설비에 도입하여 기계설비의 원도급 시장 확대 진출을 모색함 LH공사 임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비 겸업제한 연장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의 기계설비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확대가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는 겸업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분리발주 추진화 함께 원도급 시장 진출 확대를 우선 검토

건설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현행	개선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피해가 발생한 하도급자가 보증금을 청구하여도 지급받지 못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와 범위를 하도급법에 규정하여 하도급 업체의 보증금 수령 제한 방지 추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	워크아웃 기업 및 중견건설사가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거래약정서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조항이 포함되어 회원사 피해발생	무분별하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원도급 업체와 이를 허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종합건설업체가 PQ 가점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산재은폐를 지시하고 공상처리를 강요함에 따라 회원사 피해 발생	공공입찰 PQ 신인도평가에서 산업재해를 반영항목을 폐지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과실재해(개인보호구 미착용 등)를 재해를 산정 시 제외 추진
원·하도급 상생입찰제도 도입	원·하도급 업체간 서로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찰제도 부재로 하도급업체가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음	원도급 업체 입찰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및 시공능력, 공사금액을 함께 평가하여 저가 및 불공정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입찰제도 도입추진(舊 부대입찰과 유사한 제도)

건설공사 저가수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현행	개선안
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 기준 강화	공공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관련 규정(82%이하를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가격평가 적용 시 74%대까지 하락)으로 저가하도급방지 실효성 미흡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하도급계약 적정성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발주처별 저가하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실질심사 강화)
민간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민간공사의 경우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없음	민간공사에서 저가하도급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체에게 공공공사 입찰시 우대,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추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저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2012년부터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저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방안	현행	개선안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입법 발의(국회, '09.7.13)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상정(국회, '09.12.8)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2010년 5차례에 걸쳐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심의시간 부족과 국회파행으로 심의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추진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비업계 탄원서 제출

조합 고액보증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	심사대상	심사항목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대형공사의 보증사고가 증가되어 조합의 재무구조 및 전 조합원의 출자자산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액보증 심사제도 도입·시행	계약금액 50억원 초과 및 보증금액 5억원 초과 계약보증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는 '이크레디블' 등급 적용(이 등급이 없는 경우 조합 등급 적용) 수행평가는 시공능력평가, 계약조건 등 심사

조합 신규사업 추진방안

필요성	투자재원	후보사업
보증수수료, 용자이자 등 단순한 수익구조를 탈피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조합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	법률상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선정한 뒤 약 400~500억원(조합원 용자수요, 법정준비금, 보증지급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동산 개발업, 상조(相助)업, 부동산임대업 등

각 조별 분임토의 내용

A 분임조



▲ A분임조, 주계약자 부도·파산 관련된 부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B조 분임조를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시 주계약자 부도·파산의 경우 부계약자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경희 총괄본부장

▼ A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정태건	감사	창화이지텍(주)	분임장
정해돈	본회 회장	(주)성아테크	
이기준	이사	(유)동양이앤씨	
이연풍	광주·전남도회 회장	해성산업개발(주)	
김재업	부산시회 회장	대신산업설비(주)	
우광현	윤리위원장	(주)화인메컨	
이정희	조합운영위원	대하산업개발(주)	
김경희	총괄본부장	대한설비건설협회	

△ 주계약자공동도급시 주계약자 부도·파산의 경우 부계약자의 책임 문제 검토

△ 종합건설사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한 공사에서 1개사 부도·파산시 종합건설사간 지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신청 곤란, 소규모 종합건설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저조 문제 개선

△ 일부 종합건설사의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서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 조합의 고액보증심사업무 인력 보강

B 분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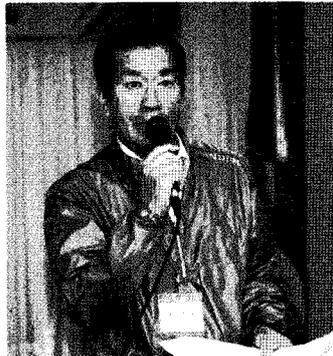


▲ B분임조, 주계약자공동도급과 분리발주 공동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B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이상일	부회장	(주)정도설비	분임장
박달하	이사	(주)하우시스	
윤광수	이사	(주)해광공영	
이호석	이사	(주)성지기공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	(주)동부	
김영옥	윤리위원	(주)대열설비	
최전남	서울시 감사	남성기전(주)	
김명국	조합이사장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 주계약자공동도급·분리발주 공동 추진 방안
- △ 저가하도급 자정 노력
-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을 위한 탄원서 조속 제출
- △ 월간 '설비건설'을 더욱 재밌고 유익하게 구성, 하자 사례 게재



◀ C분임조를 대표하여 종합건설사의 입찰관행 조사 및 월간지 발행부수 증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조기호 편집위원장

C
분임조



▲ C분임조, 저가하도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D
분임조



▲ D분임조, 산업재해 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C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김영완	부회장	(주)광산공영	분임장
이종원	이사	대원엠이씨(주)	
민평기	이사	성마기업(주)	
장순경	이사	영광기업(주)	
황광연	대전·충남도회 회장	(주)인광이앤씨	
최호선	인천시회 회장	(주)정호이앤씨	
조기호	편집위원장	환경이엔지(주)	
김대근	조합운영위원	한길건설(주)	

- △ 종합건설사의 입찰관행 조사, 불공정 입찰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 월간 '설비건설' 발행부수 증가

▼ D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김광환	부회장	(주)유경엔지니어링	분임장
정달홍	이사	(주)성보엔지니어링	
정성조	이사	(유)제일공영	
장효성	강원도회 회장	(주)우경	
이영길	전북도회 회장	(유)풍남건설	
강부인	윤리위원	(주)세방테크	
성열구	조합운영위원	(주)대청엔지니어링	
임재홍	상임부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문협회와 연대해 제도개선 추진
- △ 산업재해 은폐시 종합건설사에 대한 벌점 부과
-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탄원서 서명 범설

비건설업계 확대 추진

- △ 시공참여자제도 부활 및 도급계약서상 4대 보험료 통합 명기
- △ 조합고액보증심사제 대상범위를 50억원 이상 보다 상향 조정 필요
- △ 조합 신규 사업으로 설비건설 사옥 마련 추진
- △ 협회 연구소장 영입 통해 미래 발전방안 모색



◀ D분임조를 대표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 김광환 부회장

- △ 설비공제조합 경북 영업소 지점 승격 검토
- △ 협회 및 조합이 함께 사용하는 사옥 마련 검토

▼ E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고태식	조합 감사	준제이앤씨(주)	분임장
송기영	이사	(주)금화피에스시	
심기석	이사	세일이엔에스(주)	
이한수	감사	미강기업(주)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	영동건설(주)	
추용엽	경북도회 회장	(주)국제이엔지	
윤영근	편집위원	한국계장(주)	
채응달	조합 관리상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E분임조를 대표하여 산재·근재보험 및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고태식 조합 감사

E 분임조



▲ E분임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축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종합건설사가 부담토록 제도 개선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500억원으로 축소 건의

F 분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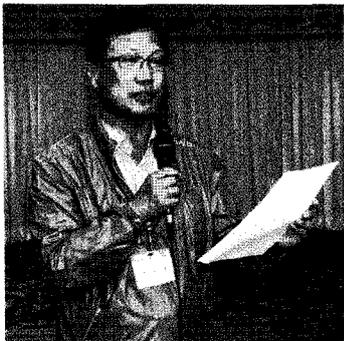


▲ F분임조, 조합의 신규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F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백종윤	부회장	윤창기공(주)	분임장
이원구	이사	(주)한산기연	
조종택	이사	금주건설(주)	
강현우	이사	(합)천우	
조탁영	충북도회 회장	(주)남양기업	
이효련	서울시회 부회장	(주)경창건설	
김원열	조합운영위원	무경설비(주)	
우영삼	서울시회 자문위원	대한설비건설협회	

- △ 조합 고액보증심사제 배점 기준의 변별력 확보 필요
- △ 보증서 만기 문자메시지 등 조합 서비스 강화 및 서류 처리기간 단축 필요



◀ F분임조를 대표하여 조합의 고액보증심사제 배점 기준 및 조합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백종윤 부회장

G
분임조



▲ G분임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 G분임조 명단

성명	직위	상호	비고
최기원	조합 운영위원	삼건설비(주)	분임장
양효석	이사	(합)공영산업	
전치권	이사	(주)아이시에스	
백수현	이사	대명건설(주)	
장영흥	제주도회 회장	(주)영건	
김주환	대구시회 회장	(주)백산산업	
김성언	윤리위원	(주)정풍개발	
장만교	조합 상임감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영진	조합 기획상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비의 중소기업 특화 업종 지정 추진
- △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시 시·도회별 특성 고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하도급 계약시 면제 및 유보조항 등 특약조건 방지
- △ 민간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종합건설사에 하도급입찰 과당경쟁 방지 협조 요청
- △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300억 유지 고수
-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탄원서 9월 정기국회 때 제출
- △ 월간 '설비건설' 편집 디자인 개선, 책임있는 광고 게재
- △ 고액보증심사 도입시 외화보증 도입 검토



◀ G분임조를 대표하여 설비의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 및 저가하도급방지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최기원 조합 운영위원

“건설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폭등의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기자재 사용, 성실시공 등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 기울일 것을 다짐”

분임토의 종합의견은 추후 회장단 회의, 시·도회장 회의, 이사회 등에서 지속 논의키로

각 분임조의 발표가 끝난 후 정해돈 회장은 “각 조별로 열린 토론과 함께 제시된 의견은 추후 회장단 회의, 시·도회장 회의, 이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제8대 집행부의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 “특히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탄원서는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가수주방지 및 성실시공 다짐 결의문 채택

이날 워크숍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폭등의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기자재 사용, 성실시공 등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가수주방지 및 성실시공 다짐’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 협회를 대표하여 김영완 부회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성열구 조합 운영위원이 ‘저가수주 방지 및 성실시공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100여명의 회원사 및 조합원사는 결의를 다짐했다.



▲ 회원사 전체의 강력한 의지를 다져서 어려운 난관 극복을 다짐하는 협회 회원사 및 조합원사

저가수주방지 및 성실시공 다짐 결의문

우리 6천여 설비건설인은 건설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폭등의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기자재 사용, 성실시공 등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제 살 깎기 식 저가수주를 결단코 혁파하고 적정공사비 확보와 성실시공으로 신뢰받는 설비건설인상을 정립한다.
- 하나, 우리는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상생협력 실천에 솔선한다.
- 하나,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과 끊임없는 신기술·신공법 개발 촉진으로 건설경쟁력 향상에 매진한다.
- 하나, 우리는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하여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선다.

2011. 5. 19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 일동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일동

정해돈 회장, 건설관련 법령 심사 및 개선에 자문 역할



▲ 정해돈 회장은 지난 5월 11일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정해돈 회장(사진 오른쪽)이 정선태 법제처장(사진 왼쪽)으로부터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받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은 지난 5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법제처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식'에서 주요 중소기업단체장 및 중소기업체 대표 186명과 함께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법제관의 자

문결과를 반영,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선결요건"이라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법령 제·개정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받은 정해돈 회장은 정선

태 법제처장에게 “기계설비 분야의 원유 소비량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액인 77조원 중 약 30조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설계·시공 과정은 물론, 특히 준공 후 철저한 에너지 관리로 국내 원유수입 감축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은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추진했어야 하나,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설비 품질 향상 및 국가 에너지 절감으로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공론화 되어야 하며, 법제처에서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 등을 보완해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를 현재 28개 분야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제 사무에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서,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들은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개선 등 주요 직무 수행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위촉식 후 기념촬영.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으로서 충실히 지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에 전치권 (주)아이시에스 대표이사 선출



▲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전치권 (주)아이시에스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전치권 (주)아이시에스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에 최두현 (주)동양이엔씨 대표이사 및 이명우 하나이엔지(주)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이선희 (주)현우콘트롤테크 대표이사를 총무간사에 지명했고 최전남 전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제어설비공사협회의 모든 간사님들께서는 자동제어를 시공하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협의회 및 협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와 더불어 자동제어업계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자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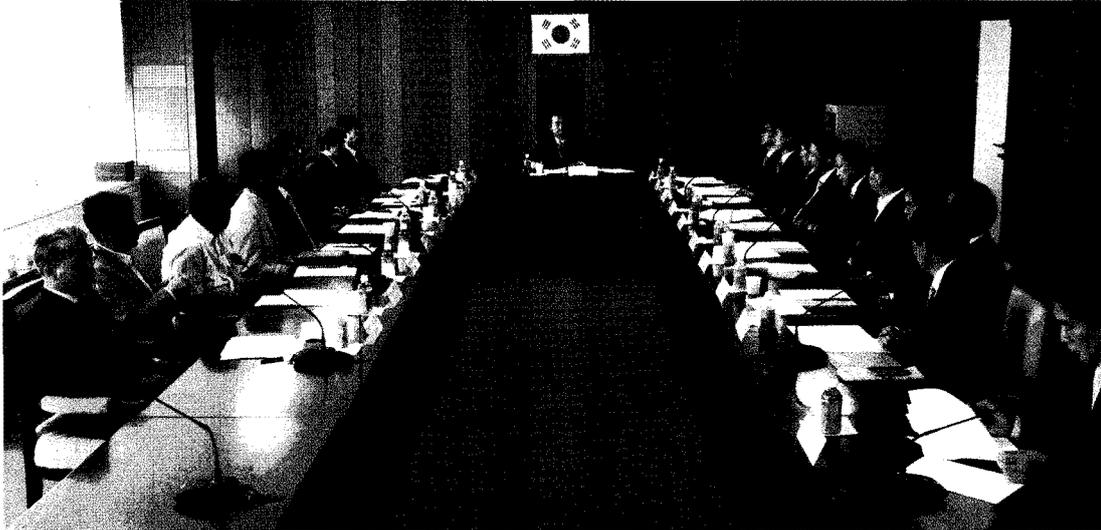
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광고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업무 추진 현황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 실적보고

- △ 공종별 협의회 현황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 △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개정 추진
- △ 건설공사 노임단가 조사
- △ 우수 회원사 포상대상사 추천
- △ 회의 개최
- △ 기계설비 자동제어 홍보 및 건의
- △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증 교부
- △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기금 조성
- △ 2011년 회계연도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예산 ○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에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 선출



▲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간사를 선출했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 부위원장에 이두형 인우공영(주) 대표이사·김길진 윤진이앤씨(주) 대표이사를 선출했으며, 총무간사에는 박승우 (주)아시아에너지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스시공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훌륭한 분들로 구성된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간사님들께서는 가스시공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과 협의회 및 협회 발전에 가교역할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조종택 대표이사는 “위원장을 맡게 해준 것은 가스시공업계의 화합과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 실적보고

- △ 공중별협의회 현황
- △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건의
- △ 질의회신
- △ 공중별협의회 설치운영규정
- △ 가스설비공사협의회 특별회비 징수관리 지침 ㉠

부산지역 설비기술 함양 및 기계설비관련 단체 발전 도모



▲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5월 18일 '2011 설비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는 지난 5월 18일 동의대학교 국제관 세미나실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설비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는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 영남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것으로, 김종수 부경대학교 교수, 박진관 부산외대 건설부 담당, 인하대학교 조재훈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 김대룡 실장 등이 각각 기술개발 및 시공, 에너지 효율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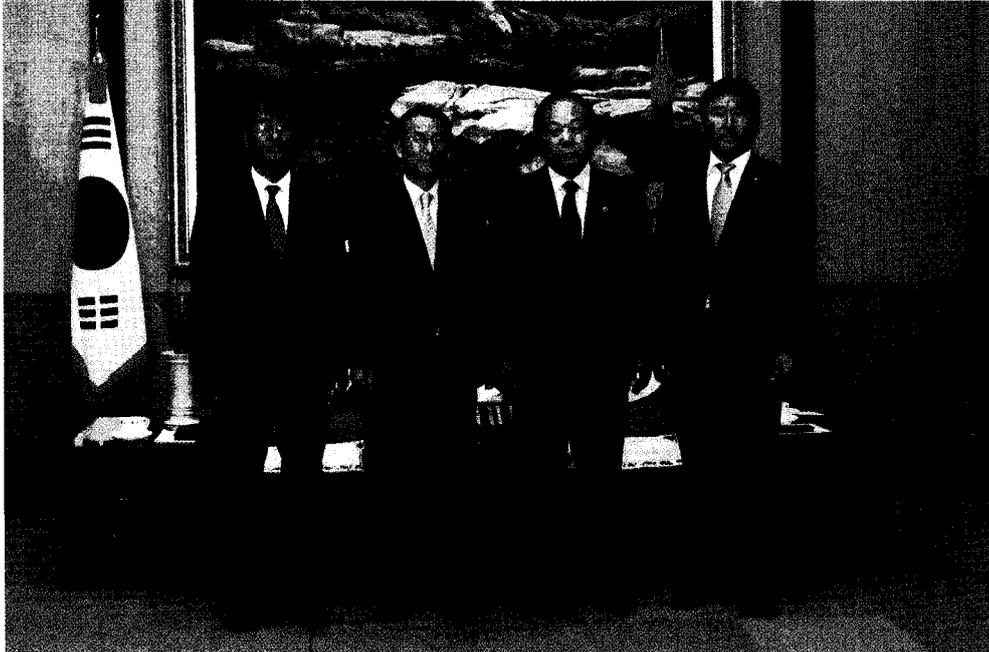
김재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만성적인 일감 부족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설비업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설비업계의 미래가 달린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통과, 분리발주 정

착, 회원사간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등과 더불어 학회 및 설비기술협회 등과 협력해 경영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4개 단체 합동 세미나 개최는 설비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해 업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2011년 설비기술 세미나 발표내용

발표 내용	발표자
Bubble jet Loop Heat Pipe의 개발과 응용	김종수 부경대학교 교수
기계설비 공사 하자 사례 및 대응방안	박진관 부산외대 건설부 담당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전문가 체계	조재훈 인하대학교 교수
정부차원의 에너지 보급 사업	김대룡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건의



▲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4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부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김재업 회장, 세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이원득 부회장, 김종배 부회장)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는 지난 4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김재업 회장은 이원득·김종배 부회장과 함께 세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설비 건설 부분 별도 하도급을 조사 △하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산지역 설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업 회장은 “부산지역 하도급을 조사시 설비건설업을 별도 조사하여 통계·공표한다면, 하

도급을 증가와 함께 일감 확보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설비건설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업 회장은 또 “부당한 대물변제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부산시의회가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물변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등에 대물변제 근절 협조공문을 보냄으로써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

설비건설업계 후학 양성에 적극지원



▲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5월 18일 '2011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으로 선정된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김재업 회장)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는 지난 5월 18일 동의대학교 국제관 효민갤러리에서 '2011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으로 선정된 3명의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학생에게 총 2백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재업 회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등 설비관련 업계가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중인 기계설비공·관리기준법이 통과되면 기계설비분야가 진보된 환경이 구축될 것이며 더불어 관련 대학 학과의 위상제고는 물론 학생들이 업계 진출시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업 회장은 또 "부산지역 설비건설업계 후

학 육성을 위한 부산광역시회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미래 설비건설업계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광역시회는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와 지난 2006년에 맺은 산학협력체결에 따라 설비건설업계 후진양성과 설비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 장학금 수여자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손지영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2
권병형		3
박종언		4

여찬모 공인노무사 위촉, 회원사 인사·노무관리에 만전



▲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4월 29일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에서 여찬모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했다.
(사진 좌로부터 조규읍 감사, 김종배 부회장, 이원득 부회장, 김재업 회장, 여찬모 노무사, 배일생 노무법인 부산삼신 이사)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는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에서 김재업 회장, 이원득·김종배 부회장, 조규읍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찬모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부산삼신 대표 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했다.

여찬모 공인노무사는 대한제강(주), BATKM, (주)한진중공업, Nokia Tmc, 부산환경시설공단 등에서 노무관리 컨설팅을 담당한 건설분야 노무 전문가로서 앞으로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및 변경자문 △인사/보수규정 등 제 규정, 단체협약 등 점검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자료 점검(고용/산재보험) △임금교섭/단체 교섭 시 요구안 검토 및 교섭실무 자문 △근로자

재해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자문 △인사관련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노동사건 분쟁발생시 처리방안 자문 △노무관련 전문서적 및 실무서 배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찬모 공인노무사는

- * 부산 내성 고등학교 졸업
- *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 * 노무법인 여명 책임사원
- * 現 노무법인 부산삼신 대표
- * 現 부산고용노동청 고용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 現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자문
- * 現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자문
- * 現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파견우수기업 평가위원
- * 現 부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 * 現 부산경륜공단 법률자문

설비건설업계 후학 양성에 진력



▲ 대전·충남도회는 지난 5월 13일·17일 각각 천안공고 및 충남기계공고를 방문해 설비과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대전·충남도회(회장 황광연)는 지난 5월 13일 천안공업고등학교(교장 임승훈)와 5월 17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정충호)를 방문, 총 8명의 설비과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대전·충남도회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2010년 6월 21일 체결)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천안공업고등학교를 방문, 기계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5월 17일에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와 산·학 협약식을 갖고 산업설비과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에 모범을 보인 4명의 학생에게 교재 및 학용품 지원금을 전달했다.

황광연 회장은 천안공고 및 충남기계공고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장학금 수여자 명단

학교 및 학과	성명
천안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서광현, 민준환, 김승민, 이석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산업설비과	주민룡, 주상민, 진병관, 조상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분리발주 건의



▲ 강원도교육청



▲ 원주교육지원청



▲ 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회(회장 장효성)는 지난 4월 26일, 5월 16일, 5월 18일에 강릉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을 각각 방문하여 협회 홍보 및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업계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했다.

장효성 회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비를 전달한 후 민병희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원

가절감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앞으로도 성실시공으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협회의 급식비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원도회는 매년 강원도교육청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청 산하 3개 교육지원청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

▼ 2011년 급식비 지원 현황

일자	기관
5월 18일	강원도교육청
5월 16일	원주교육지원청
4월 28일	강릉교육지원청
예정	춘천교육지원청

협회를 중심으로 화합과 단결의지 다져



▲ 강원도회는 지난 5월 13일 강원도내 회원사 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친목단합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회(회장 장효성)는 지난 5월 13일 강원도 삼척에서 강원도내 회원사 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친목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장효성 회장을 비롯한 강원도내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환선굴 및 대금굴을 둘러보며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장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원사들은 설비건설업계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강원도 지역 회원사들의 업역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정보교류를 하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희망 심어줘



▲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장영홍 회장(사진 오른쪽 세 번째)은 지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양성언 교육감(사진 왼쪽 세 번째)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영홍)는 지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양성언 교육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사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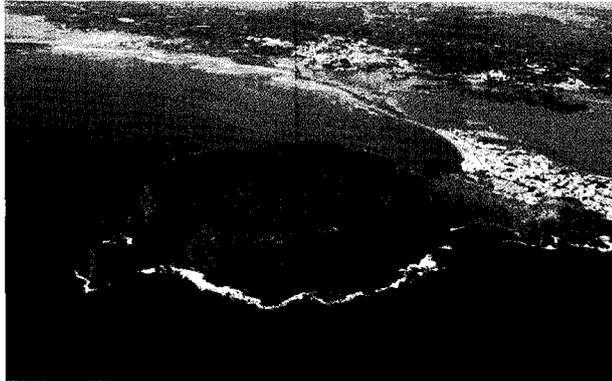
장영홍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남다른 열의

를 갖고 공부하는 도내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 회원사들이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회는 매년 결식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통해 생계곤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영흥 회장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건설분야 분과위원 활동 펼쳐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흥 회장(사진 오른쪽)은 제주도 선정을 위해 전국 회원사에게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은 제주 성산 일출봉)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흥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지난 5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2011워크숍에서,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영흥 회장은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 및 부대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건설인 모두가 투표 참여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도는 28개 후보지역 중 인간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자연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어 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전

화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선정된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
투표

- ① 001-1500-7715
- ② 전화 연결 후 60초간 영어 안내가 끝나고 "삐~" 소리가 나면 7715(제주코드) 입력
- ③ 감사 멘트(Thank you) 후 종료

인터넷
투표

- ① www.N7W.com 클릭
- ② 투표배너 클릭
- ③ 제주도 등 7곳 선택 후 →오른쪽 하단 'Continue to Step 2' 클릭
- ④ 회원가입 후, 하단의 'Register' 클릭
- ⑤ 회원가입시 가입한 메일함에 메일 수신 확인
- ⑥ Successfully 단어가 보이면 투표 완료

기타 자세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064-710-3951)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064-755-9828)로 문의 바란다. ☎